한국인구학 제30권 제3호(2007년), pp. 83~105
연구논문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김 태 홍** · 김 난 주*** · 권 태 희****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핵심단어: 자원봉사활동, 경제적 가치, 사회자본

Ⅰ. 서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가 여러 가지 사회의 긴급한 문제 즉, 예산적자 보전, 정부 지출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이러한 제3섹터의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이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자원봉사영역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충족될 수 없는 사회의 요구와

---

* 본 연구는 〈2004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결과 학술세미나(2005.12)〉에서 발표된 "사회자본으로서 자원 봉사 참가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논문을 일부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 제1저자,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e-mail: kimth@molab.go.kr
*** 제2저자,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e-mail: string@kwdimail.or.kr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21 박사후연구원, e-mail: tkwon@skku.edu

욕구 즉, 두 부문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는 강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자본축적과정에 포함한다. 또한 자원봉사영역은 보다 다원론적인 제도(pluralistic system)의 일부분으로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미 주요선진국에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원봉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실업자는 실업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업자는 자신감과 특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혼합경제체제를 가진 여러 국가는 자원봉사영역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규제를 변화시켜 왔다.[1)]

우리나라도 제3섹터의 주요한 활동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 특히 경제적 관점에 의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자원봉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이론 및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가 현황과 특징, 자원봉사활동 참가 및 참여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계정(SNA)에 산입되지 않는 자원봉사활동이 복지(welfare)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유엔 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기준에 따라 국민소득계정에 자원봉사활동이 산출하는 부가가치를 향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하였다.

Ⅱ.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1.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이론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의 영리부문 혹은 공공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3섹터[2)]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에서

---

1) 덴마크에서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을 공공복지시스템의 보완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Gaskin, et al. 1996).

2)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측에서 외면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조직이라고 정의되며(Theodore Levitt, 1973),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여기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제3섹터의 주요한 활동의

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정치학, 사회학, 사회정치학적 시각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의 부족으로 이들 부분이 경제적으로 검증, 지원되지 않았거나 될 수 없었다.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크게 거시경제학적 이론과 미시경제학적 이론이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거시 경제적 이론에서 전통적인 경제학 분석은 민간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할을 경제적인 사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다룬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제공자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만족스러운 수단이 아니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유일한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자원봉사활동과 제3섹터 조직의 급격한 출현을 설명하는 주요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측면이 있다.

먼저 수요이론으로 바이스브로드(Weisbrod, 1977)는 자원봉사조직의 존재를 시장 혹은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공공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연관시킨다. 서비스제공에서 자원봉사조직에 대한 확대된 역할에 대한 강조는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조직의 시장실패는 취약집단에 대한 서비스공급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 집단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공비용이 높은 원격지에 있어서 시장에 의한 공급이 어렵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나 시장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서 바이스브로드(Weisbrod)는 사회가 다양하면 할수록 공공재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고 따라서 비영리섹터의 규모가 커진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는 인도의 경우이다. 인도의 비영리조직은 세계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회의 충족되지 않는 공공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출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서 공급측면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충족되지 않는 공공재 수요를 공급하는 기업가의 주요역할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관의 성장 동기는 전적으로 희망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이타주의적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외에도 파트너십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이론 혹은 자발적 실패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와 자원봉사부문간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와 반대되는 이론으로써 자원봉사부문을 정부의 공공재공급의 대안으로 보지 않고, 정부와 제3섹터가 서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이론적인 정당성을 제공한다. 양자는 동일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쪽이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등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미시경제이론은,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과 참여시간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동기에 관한 연구 중 뮬러(Mueller, 1975)에 의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4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요인은 정신적인 소득 즉, 자원봉사자의 이타주의(altruism)에 대한 향유와 그들의 지위와 관련된 사회적 명성의 소비(consumption of social prestige)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편익으로 개인과 가족 급부에서의 자선의 소비와 배분, 노동시장의 숙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획득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에서는 이와 같은 동기를 모형화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대표적인 미시경제학적 모형은 공공재모형(public goods model)과 민간소비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이다. 두 모형의 차이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게끔 만드는 동기에 대한 가정에 있다.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자원봉사를 하게 만드는 동기이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선(charitable gift)은 의미있게 된다. 민간소비모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자원봉사자에게 동기유발이 된다는 점이다. 이 모델에서 자선은 언제나 의미 있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동기들을 혼합해서 사용한다.[3)]

이 외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미시 경제적 모형으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가치평가는 자원봉사노동에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의 기회비용으로서 측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타당성은 자원봉사시간의 기회비용이 자선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생산 가치와 동일한가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두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가치가 낮은 자선서비스를 수행할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비영리기업이 그들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보다 낮은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경우이다.

---

3) 대표적인 모형으로 안드레오니(Andreoni, 1990)의 비 순수이타주의 모형(impure altruist model)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표준적인 노동공급대체행위에 의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임금)이 높을 때에 자원봉사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낮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가진 집단 즉, 저임금근로자나 혹은 미취업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미시경제학적 자원봉사행위모형에서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개인 혹은 가구의 자원봉사결정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원봉사에 대한 선행연구

자원봉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봉사부문이 선진국과 동일하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부족, 이 부문에 대한 개념과 함께 자원봉사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선진국에서도 서로 다른 개념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여러 연구의 존재는 자원봉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는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다음에서 기존 자원봉사 일반에 대한 연구와 자원봉사참가와 참여시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참가와 참여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규모, 범위,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존 홉킨스 비영리부분 비교연구(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가 있다. 1990년에 시작된 동 연구는 여러 국가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켰다. 1994년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8개국에서 완료되었고, 이후 분석모형에서는 20개국을 포함시켜서 확대되었다. 1998년에 28개국 중에서 22개국의 자료가 입수되어(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호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22개국 평균 비영리조직에서 자원봉사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는 인구비율은 28%로 추계되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인 유러볼(Eurovol, 1994)은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자원봉사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자원봉사에 투입된 평균시간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참가자 비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 독일의 시간사용조사(1991/1992)는 인구의 1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원봉사의 정의는 공식적인 조직에서 수행된 자원봉사활동만을 포함하고, 사적 네트

워크(private network) 즉 가계들 간의 자원봉사활동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의 참가와 시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프리만(Freeman, 1997)은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시간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는 시간에 대한 높은 가치를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시간이 긴 집단은 보다 높은 가구소득, 보다 높은 연령과 학력수준, 기혼이거나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집단이었다. 자원봉사의 가구패턴에 의하면 부부 모두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모두 안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비용 설명의 적합한 특성은 성별구분이었다. 대부분 과거 자원봉사자는 높은 잠재임금(implicit wages)과 그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집단으로 고학력 집단인 전문가와 관리자였다. 이와 함께 고용은 자원봉사활동과 정(positive)의 관계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성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남성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여성은 일반적으로 U자형을 보였다. 즉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과 가장 긴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보다 많이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로시간이 긴 집단이 보다 많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비경제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비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참여자의 태도, 기호, 능력, 에너지 등을 의미한다.

칼린(Carlin, 2001)은 미국기혼여성의 자원봉사노동공급함수를 분석하였다. 참가함수와 시간공급함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자원봉사 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원봉사 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전적 기부와 자원봉사간의 관계를 보면 참가단계에서는 보완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공급시간에서는 대체관계를 보였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가르시아와 마쿠엘로(Garcia and Marcuello, 2002)는 스페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의 노동공급모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규모와 취학 전 아동은 여성배우자의 자원봉사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규모는 남편의 자원봉사시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족의 금전적인 기부는 배우자의 자원봉사시간과 보완관계에 있었다. 브라이언 등(Bryant et al, 2003)은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자녀수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혼인으로 인한 자녀수의 증가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해줌에 따라 사회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녀수가 많은 배우자일수록 자원봉사참가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디(Schady, 2000)는 페루지역, 스미스(Smith, 2004)는 미국의 미주리 주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참가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의 사회 자본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할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특징과 참가결정요인

1.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2005.6)의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 활동으로 정의한 '참여 및 봉사활동' 중에서 협의의 사회자본 영역에 해당되는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하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인구 규모와 그 특징을 살펴본다.[4] 우리나라의 광의의 자원봉사활동 행위자에 해당하는'참여 및 봉사활동'의 행위자는 〈그림 1〉에 나타나듯이 87,085,115명으로 이중 남성은 38,584,000명으로 전체에서 44.3%를 차지했고 여성은 이보다 많은 48,501,115명으로 55.7%였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 협의의 자원봉사로 정의한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전체 자원봉사 인구 19,403,397명중 여성이 14,370,701명(74.1%)으로 남성의 5,032,696명(25.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5]

자원봉사 행위자 평균시간은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남성이 3시간21분, 여성이 1시간 47분이었고 협의의 자원봉사는 남성이 2시간 40분, 여성이 1시간 51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시간이 길었다. 이에 반해 행위자 비율에서는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남성이 2.3%, 여성이 2.7%, 협의의 자원봉사는 남성이 0.3%,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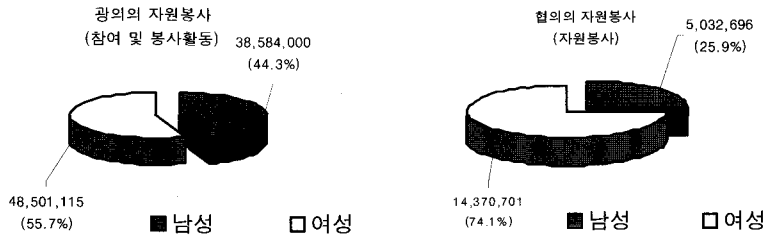
4) 생활시간사용조사에서 자원 봉사의 범위는 대분류 코드 6에 해당하는 '참여 및 봉사활동'을 광의의 자원봉사로, 중분류 코드 63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를 협의의 자원봉사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유러볼(Eurovol, 1994)에 기초로 하고 있음.

5) 광의 및 협의의 자원봉사자 수 추계

	20세 이상 성인[a]	행위자비율[b]		인원[b]	
		자원봉사	참여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	참여 및 봉사활동
남성	16,775,652	0.3	2.3	5,032,696	38,584,000
여성	17,963,376	0.8	2.7	14,370,701	48,501,115

자료 : [a]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b]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원시자료〉

<그림 1> 성인 자원봉사노동의 성별 분포(광의, 협의)



자료: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원시자료.

이 0.8%로 여성의 행위자 비율이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참가시간과 참여비율 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전체 인구 중에서 자원봉사자 비율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은 국가를 보면, 서유럽지역에 속하는 국가와 미국이 상당히 높았다. 즉,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대략 18%이상이었고, 핀란드, 독일, 벨기에, 호주, 체코가 인구의 9%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1.8%), 페루(1.1%), 헝가리(1.0%), 브라질(0.9%), 멕시코(0.5%) 등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활동 참가시간 결정요인 분석

1) 참가 및 시간결정 모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가와 참가시간 결정을 분석한 계량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자원봉사참가를 결정하는 모델로는 로짓모형(logit model)이나 다항로짓모형(multimomial logit model)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항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특정한 개인 i가 자원봉사에 참가하면 yi = 1, 그렇지 않으면 yi = 0이라고 하자. 그러면 특정한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은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식 (1)은 누적로지스틱분포함수로 비선형이기 때문에 추정을 위해서 선형모형으로 전환하면 식 (2)와 같아진다. 식 (2)에 log를 취하면 선형관계를 가지는 식 (3)과 같은 통상적인 로짓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X)로서 자원봉사참가확률을 나타내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프리만(Freeman, 1997)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P_i = E[y_i = 1 \mid X_i] = 1/(1+e^{-(\alpha+\beta X_i)}) \quad (1)$$

$$P_i/(1-P_i) = e^{Z_i} \quad (\text{단, } Z_i = \alpha+\beta X_i) \quad (2)$$

$$L_i = \ln[P_i/(1-P_i] = \alpha + \beta X_i + u \quad (3)$$

프리만은 자원봉사시간을 복합재(collective-type goods)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최적화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즉, 기부의 기회비용에 대해 가중치는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기부의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부에 대한 의사는 개인의 박애주의적 기부에 대한 선호, 풀타임 노동활동으로 오는 잠재적인 소득, 정부의 유사한 복합재에 대한 자원투입 정도의 함수이다. 그리고 기부의 기회비용은 개인이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의 소득을 벌 수 있느냐와 유사한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에 의존함을 시사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외생적으로 결정된 임금수준(W)에 직면한 개인은 개인소득과 가격에 따라 여가와 자원봉사시간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프리만은 재화(G), 여가(L), 그리고 자선(C)에 영향을 받는 효용(U)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상정하였다. 자선은 두 가지 투입요소 즉, 자원봉사시간 (Tv)과 기부(D)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러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W=임금수준, Tw=근로시간, Y=비임금소득, D=자선형태의 기부이다.

$$Max\, U(G, L, C) \quad (4)$$

$$s.t\ C = C(Tv, D) \quad (5)$$

소득 제약함수: $G + D = WTw + Y$

시간 제약함수: $Tw + Tv + L = 1$

6) Freeman (1997) "Working for notio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 vol. 15, no. 1, pt. 2: s140-s166.

이와 같은 함수에 인적자원생산에 대한 벤포라스(Ben-Porath's, 1967) 모델을 결합하면, 두 가지 형태의 자선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C = C(Tv, D) \tag{5a}$$

$$C = C(WTv, D) \tag{5b}$$

식 (5a)에 의하면 자원봉사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고임금근로자 혹은 임금이 증가하면 하락한다. 이에 비해, 식(5b)과 같은 함수설정은 자원봉사를 임금에 의해서 지수화 된 인적자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에 의하면 공급결정에서 시간의 증가된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고,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기부의 대체가 발생한다. 식(4)와 (5a)를 이용하여 식(6)과 같은 단순한 선형모형의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파생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개인의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파생수요는 곧 바로 자원봉사시장에서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공급된다.

$$Tv = a + bW + cY + v \tag{6}$$

여기서, b는 정(正)의 소득효과와 부(-)의 대체효과에 의존한다. 그리고 c는 자선활동의 소득효과이다. v는 개인의 특성화된 선호변수이다. 자원봉사로부터 보다 큰 효용을 얻는(이타주의 욕구를 가진) 개인의 경우 v는 정(positive)이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의 효용(disutility)을 얻는 개인의 경우 v는 부(negative)이다.

자원봉사 참가와 시간결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고, 자료는 통계청이 2004년에 조사한 생활시간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시간조사의 중분류코드 (협의의) 자원봉사활동(63)의 참가여부(참가=1, 비 참가=0), 그리고 협의의 자원봉사시간(1일 평균시간, 단위는 분)이다. 설명변수로는 연령(Age)과 연령제곱(Agesq), 가구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house=1: 가구주, =0: 비가구주),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mar=1: 미혼, =0: 기혼), 취학 전 아동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Dchild=1: 취학전 아동 있음, =0: 없음 혹은 미혼), 맞벌이를 나티내는 더미(Dtwo=1: 맞벌이, =0: 비 맞벌이 혹은 미혼)이다.

또한 성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Dsex=1: 남성, =0: 여성), 평소 육체적으로 피곤을 느끼는 더미변수(Dpigon=1; 피곤을 느낌, =0 그렇지 않음),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학력더미변수(Dsch1=1: 중졸, Dsch2=1: 고졸, Dsch3=1: 전문

대졸 이상, 그리고 기준학력은 초졸 이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post1=1: 임금근로자, Dpost2=고용주 및 자영업자, 그리고 기준변수는 미취업상태임),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Income: 연속변수로 월평균소득을 나타냄), 주거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ipju1=1: 자기주택, Dipju2=1: 전세, 그리고 기준변수는 월세 및 무상주택임), 이 외에도 지역더미변수(Dreg1=1: 서울 및 경기, 인천, Dreg2=1: 충청 및 강원권, Dreg3=1: 호남 및 제주권, 기준 지역은 영남권임) 및 요일을 나타내는 더미변수(Dweek1=1: 토요일, Dweek2=1: 일요일, 기준요일은 평일임)를 사용하였다.

2) 추정결과

20세 이상 성인이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자원봉사활동 참가결정 요인에 대한 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1〉

<표 1> 협의의 자원봉사활동 참가결정요인 추정결과

	전체		남성		여성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추정계수	S.E.
Constant	-4.767***	0.455	-3.689***	0.845	-5.724***	0.591
Age	-0.012*	0.006	-0.022**	0.011	-0.003	0.008
Dmar	-1.903***	0.315	-3.874***	1.084	-1.525***	0.342
Dchild	-0.582***	0.173	-0.200	0.312	-0.685***	0.208
Dtwo	0.144	0.183	0.563**	0.263	-0.355	0.268
Dsex	-0.498***	0.166	-	-	-	-
Dpigon	-0.508**	0.231	-0.219	0.382	-0.797***	0.295
Dsch1	0.343	0.231	-0.434	0.396	0.771***	0.286
Dsch2	0.725***	0.204	-0.079	0.314	1.239***	0.267
Dsch3	1.167***	0.221	0.200	0.337	1.769***	0.293
Dpost1	-0.782***	0.275	-1.602***	0.477	-0.104	0.356
Dpost2	-0.388	0.266	-1.004**	0.461	0.098	0.337
Dhouse	0.338**	0.156	0.302	0.347	0.197	0.189
Incom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Dipju1	0.226	0.172	-0.175	0.268	0.464***	0.229
Dipju2	-0.093	0.214	-0.895**	0.410	0.272	0.266
Dreg1	0.564***	0.161	0.534*	0.306	0.549***	0.190
Dreg2	0.799***	0.169	1.037***	0.297	0.656***	0.207
Dreg3	0.741***	0.172	0.724**	0.317	0.760***	0.205
Dweek1	-0.365*	0.155	-0.080	0.272	-0.491***	0.189
Dweek2	-0.292***	0.151	0.301	0.239	-0.635***	0.202
-2 Log likelihood	3738.398		1196.903		2487.372	
관찰갯수	52,554		24,142		28,412	

주: * p<0.01, ** p<0.05, *** p<0.001을 나타냄.
자료: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원시자료.

과 같았다. 자원봉사활동 참가결정요인[7] 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보면 인적특성변수로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별,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약간 더 높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이 미혼보다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더 높았다. 취학 전 아동 유무를 보면 취학전아동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원봉사를 할 확률이 낮았다.[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05년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6세 미만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평소에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참가확률이 더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도 일본의 타카노부 외(中島隆信 外, 200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타카노부 외(中島隆信 外, 2005)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참가확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원봉사참가 확률이 낮았다. 그리고 취업유무와 종사상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는 각각 미취업자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훨씬 낮았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낮은 임금근로자가 비 임금근로자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더 낮았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에서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금전적·시간적인 여유가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요일변수를 보면 평일이 주말보다 더 많이 참가하고, 일요일이 토요일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이모형은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이므로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음.

8) 타카노부 외(中島隆信 外, 2005: 39). 그리고 칼린(Carlin, 2001)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의 수가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원봉사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참가함수를 성별로 각각 구분해서 추정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낮았고, 미혼에 비해서는 기혼이 참가확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혼일수록 자원봉사에 많이 참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연령변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고, 혼인변수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 존재는 여성의 자원봉사참가에만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가에는 부(negative)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피곤함을 느끼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확률이 훨씬 낮았다. 학력 또한 여성의 참가확률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추정결과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학력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주택의 입주형태가 자원봉사활동참가에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은 월세나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맞벌이는 남성의 자원봉사참가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맞벌이 남성은 그렇지 못한 남성보다 자원봉사참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미취업자가 임금근로자나 고용주 및 자영업자보다 자원봉사에 참가할 확률이 더 높았다.

지역더미변수를 보면 남녀 모두 수도권, 충청 및 강원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영남권 거주자 보다 자원봉사참가 확률이 높았다. 추정계수 크기로 보면 충청 및 강원권, 호남 및 제주권, 수도권 순으로 참가확률이 높았고, 여성은 호남 및 제주권, 충청 및 강원권, 수도권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요일별로 보면 남성은 요일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는데 비해서 여성은 유의미하였다. 여성은 주말에 비해서 평일에 자원봉사참가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주말 중에서는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이 여성의 자원봉사참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20세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함수추정결과[9]는 〈표 2〉와 같았다.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의 추정계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 소득, 취업유무 및 종사상지위, 주택의 입주유형이었다.

추정결과를 기초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원

9)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이므로 OLS 추정법을 활용함.

<표 2> 협의의 자원봉사 시간결정요인 추정결과

	전체		남성		여성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310.771***	-2.961	-430.178*	-1.866	-158.985	-1.339
Agesq	-0.151***	-3.922	-0.195**	-2.336	-0.131***	-3.026
Age	16.352***	4.016	22.094**	2.463	12.970***	2.869
Dmar	121.434***	3.360	42.266	0.300	95.908**	2.582
Dchild	27.454	1.428	101.629***	2.667	-2.743	-0.122
Dtwo	-41.756**	-2.153	-39.980	-1.271	-15.643	-0.572
Dsex	29.202*	1.711	-	-	-	-
Dpigon	-30.391	-1.282	-59.498	-1.391	-11.691	-0.394
Dsch1	32.813	1.397	107.458**	2.339	2.044	0.073
Dsch2	17.697	0.891	57.211	1.619	-17.849	-0.719
Dsch3	18.120	0.869	53.582	1.357	-3.968	-0.154
Dpost1	41.504	1.551	69.632	1.327	-11.108	-0.485
Dpost2	56.737**	2.095	107.672**	2.236	-53.380	-2.043
Dhouse	24.194	1.427	-33.343	-0.848	32.052	1.567
Income	-0.169*	-1.782	-0.236*	-1.690	-0.053	-0.345
Dipju1	-11.632	-0.647	-24.048	-0.788	-15.618	-0.840
Dipju2	-56.845**	-2.584	-85.638*	-1.782	11.084**	0.545
Dreg1	14.654	0.884	68.676*	1.760	-0.095	-0.005
Dreg2	7.616	0.439	-22.987	-0.621	-16.659	-0.892
Dreg3	1.718	0.098	-36.952	-0.944	-3.362	-0.162
Dweek1	-11.514	-0.718	-19.340	-0.614	5.061	0.145
Dweek2	-8.078	-0.503	-20.169	-0.728	-6.467	-0.182
R2	0.163		0.400		0.142	
관찰 수	328		99		228	

주: * p<0.01, ** p<0.05, *** p<0.001을 나타냄.
자료: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원시자료.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길어지다가 54.1세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평균 봉사활동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미혼은 기혼보다 평균적으로 봉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남성참가자는 여성참가자보다 평균적으로 봉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인 자원봉사활동참가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원봉사시간이 짧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원봉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참가자의 참가시간에 맞벌이 변수와 월평균소득이 부(negative)의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자원봉사자[10]의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11]

이와 반대로 취업유무 및 종사상지위를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결과에서는 월소득수준변수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비 임금근로자인 자원봉사자는 각각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자보다 자원봉사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은 소비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역변수를 보면 자원봉사참가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반면에,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자원봉사시간 결정함수를 성별로 구분해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에 참가한 성인남녀 모두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과 함께 자원봉사시간이 증가하였다가 일정 연령이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감소하는 연령을 보면 남성은 56.7세인데 비해서 여성은 49.5세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변수를 보면 여성의 경우 미혼 자원봉사자가 기혼자원봉사자보다 봉사시간이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원봉사에 참가한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남성자원봉사자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자원봉사시간이 더 길었다. 소득변수는 남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자원봉사에 참가한 남성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시간이 짧았다. 주택의 주거형태변수는 전세를 나타내는 더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주거형태가 남녀 자원봉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서, 남성의 경우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나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시간이 짧은데 비해서 여성은 반대로 길었다.

Ⅳ.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1.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자원봉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무급노동(unpaid work)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출량접근법(Output

1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11) 노버트 랄. 차디(Norbert R. Schady. 2001)는 페루의 자원봉사공급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페루의 자원봉사자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 Method)과 투입량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다. 산출량접근법은 자원봉사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가치를 부과한 것에서 투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자원봉사조직의 대부분은 그들이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산출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생산된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 있는 동등한 재화나 용역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생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출물접근법은 시장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된 요소비용을 적용하여 자원봉사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산출물생산의 주요 투입요소 중의 하나가 무급인 자원봉사노동이기 때문에 과소추정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주요한 문제는 실증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예산자료, 시간당 임금, 투입 및 산출물의 가격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막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투입량접근법은 노동시간에 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별한 노동에 필요한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data set)가 필요하다. 투입량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다. (1) 종합적대체법(global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와 같은 직업을 수행할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치평가에 사용한다. 이 방법은 근로자 개인의 인적특성을 반영시키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추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전문가대체법(specialized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와 같은 직무의 숙련을 가진 전문가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직능을 세분화하여 가장 유사한 자원봉사활동의 대응가치를 유사직종의 시장임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종합대체비용법의 자원봉사노동을 단일직업으로 고려함으로써 야기된 과소추계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3)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적용한다. 이 방식은 특별한 자원봉사자의 숙련과 기회임금에 따라 다양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자의 숙련정도에 의해 생산성의 크기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산성을 전제로 한 직능별 평균임금을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직군에 속한 자원봉사노동의 추계치가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추계방식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기회비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자원봉사의 기회비용은 시간배분모델(time allocation model)내에서 분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투입된 시간은 유로볼(Eurovol, 1994)과 같이 시간사용분석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입물접근법은 산출물접근법에 비해서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장점이 있는 한편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바이스브로드(Weisbrod, 1988)에 의하면 이 방법은 자원봉사노동의 가치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일반인은 자원봉사자로서 생산성이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자원봉사자들은 유급노동을 선택한 평균적인 집단보다 시장에서 덜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방법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기회비용이 평균적인 비농업근로자의 임금과 같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제임스(Jamnes, 1989)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동기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적인 물질적 급부(private material benefits)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급부는 투입물접근법을 적용할 때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급부의 자원과 비용은 이미 자원봉사조직의 계정에 포함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평가는 이중계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측면의 비판으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개인적인 효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현장직업훈련(OJT)을 통해 인적자원축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서비스활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에 이러한 훈련은 자원봉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비용으로 포함되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 경제적 가치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 시간과 자원봉사자수, 시장임금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사가 자원봉사활동이 세부유형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대체법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임금을 전 직종의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기회비용법을 채택하였다.[12] 자원봉사 행위시간은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

12) 현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는 활동별세분류가 되어 조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입물접근법 중 전문가대체법을 시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종합대체비용법의 경우는 기존 연구자료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단일직종의 유사임금을 적용하므로 여러 추정방법 중 추계치가 가장 과소평가

참여 및 봉사활동과 중분류인 봉사활동의 요일평균 행위시간이며 자원봉사 행위자 수는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 코드인 참여 및 봉사활동(6)과 중분류코드인 봉사활동(71, 74)의 행위비율에 통계청의 〈2004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20세 이상 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시간당 시장임금은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연간특별급여와 월급여총액의 임금을 사용하여 월평균임금을 구하였고 이를 다시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하였다.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 행위자의 총자원봉사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구하였고 여기에 365일을 곱하여 연간 경제적 가치를 구하였다. 추정방정식은 식 (7)과 같다.

$$EV = Pv_i \times Tv_i \times Wv_i \times 365 \quad (7)$$

(단, $i = Total, Male, Female$. EV: 자원봉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v_i: 자원봉사자 수, Tv_i: 자원봉사 시간, Wv_i: 시간당 임금)

20세 이상 협의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18,325억 원으로 이는 2004년 우리나라 GDP(7,784,446억 원)의 0.2% 해당하는 수치이다. 성별로 남성은 6,390억원, 여성은 9,699억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423억원 많았다. 20세 이상 성인의 협의의 자원봉사 노동의 전체 연간 경제적 가치는 18,325억 원으로서 이중 남성이 6,390억원, 여성이 9,699억원으로 여성이 3,309억원 많았다. 협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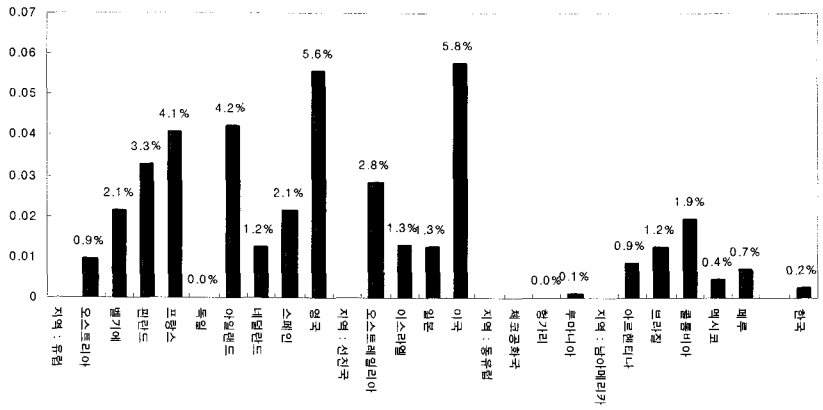
<표 3> 협의의 자원봉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2004	인구수 (A)	자원 봉사자수 (B)	자원봉사자 비율 (B/A×100)	1일 자원 봉사시간 (C)	시간당 임금 (D)	자원봉사 1인당 1일 경제적 가치 (E: C×D)	1인당 연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F: E×365)	전체 자원봉사의 연간 경제적 가치 (FXB)
단위	명	천명	%	시간:분	원	원	천원	억원
전체	34,739,028	194,403	0.6	2:04	10,381	25,875	9,444	18,325
남성	16,775,652	50,327	0.3	2:40	10,381	34,790	12,698	6,390
여성	17,963,376	143,707	0.8	1:51	10,381	18,492	6,749	9,699

주: * 생활시간조사 중분류코드 자원봉사(63)활동이 해당됨.
자료:(A)장래인구추계(통계청), (B)장래인구추계(통계청)와 〈2004년 생활시간 조사〉, 통계청, 원시자료를 활용.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D)임금 구조 기본통계(각 년도) 및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원시자료.

된다는 결함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2> 국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대GDP 비율



주: 단, 한국은 〈표 3〉의 자료.
자료: Kakoli Roy, Susanne Ziemek(2000)에서 재인용함.

자원봉사노동에서는 남성이 1일 자원봉사 평균시간은 여성보다 길었으나 자원봉사 참여 행위자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아 연간 경제적 가치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세계 각 국의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미국(5.8%)과 영국(5.7%)이 가장 높았고 독일, 헝가리는 0.1%에도 못 미쳐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0.2%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 국가는 독일(0.0%), 헝가리(0.0%) 2개국에 불과해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사회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은 과거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계되어 왔고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개발도상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단순한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정부와 제3섹터가 협력해서 공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2005.6월)' 제정을 분기점으로 하여 더욱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참가결정요인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자원봉사자 비율은 1.9%(2004년)로 이러한 비율이 18% 이상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 일본의 5.5%보다도 더 낮았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인구의 74.1%는 여성이었으며, 자원봉사참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높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평균시간을 보면 남성참가자가 여성보다 더 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다른 변수를 통제시키고 자원봉사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면, 기혼이면서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참가확률이 높았다. 취학 전 아동유무를 보면 취학전아동이 있는 집단은 오히려 참가확률이 낮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참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금전적·시간적인 여유가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50세 중반까지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동일한 연령인 경우 기혼은 자원봉사시간이 짧았다. 특히 맞벌이, 소득이 높은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이 소비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우리나라 협의의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2조 1,467억 원, 성별로 남성은 7,825억 원, 여성은 11,248억 원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GDP의 5.8%, 영국은 5.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여 주요선진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요선진국과의 사회·문화·정치·역사·경제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갭을 배제하더라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구축으로서 보육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 소득이 높은 집단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 유엔통계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자원봉사에 대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Nonprofit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노력이 긴요하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향후 독립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국적인 규모인 인구센서스조사에 자원봉사를 표본 조사로 포함하는 것 등이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져야 할 개선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ne H. Gauthier and Frank F. Furstenberg, Jr. (2004) "Working More, Playing Less: Changing Patterns of Time Use among Young Adults" in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edited by Richard A. Settersten, Jr., Frank F. Furstenberg, Jr. and Rubén G. Rumbau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 (2002) *Social Capital and Social Wellbeing*, Discussion pape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Current Col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7) *Time Use on Culture/Leisure Activities.*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C. Victorino, Anne H. Gauthier (2002) *Historical Trends in the Patterns of Time Use of Seniors in Canada since the 1980s* Paper prepared for the Canadian Population Society Annual Meeting, Toronto, May 2002.

Crawford, D. W.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Eurostat (2005) *Comparable Time Use Statistics - National Tables from 10 European Countries.*

Faye Soupourmas and Duncan Ironmonger (2002) *Giving Time :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Volunteering in Victoria*,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rank Jones (1995) *Human Capital and the Use of Time, Statistics Canada* Working Paper 79.

R. B. Freeman (1997) "Working for Notio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1 pt.2: s140-s166.

Gaskin, K. (1999) "Valuing Volunteers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the Volunteer Investment and Value Adult"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2(1): 1-18.

J. Andreoni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00: 464-477.

Jefferdy L. Jordan and Abdul B. A. Munasib (2006) "Motives and Social Capital Consequ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L No.4 December 2006: 1093-1112.

Michael Bittman (1999) *Social Participation and Family Welfare: The Money and Time Costs of Leisu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Norbert R. Schady (2001) *Who Participates?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an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Programs in Rural Peru*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671, The World Bank.

Norah McClintock (2004) *Understanding Canadian Volunteers* Canadian Centre for Philanthropy.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Education and Skills* OECD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2000)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Paris: OECD.

Paul S. Carlin (2001) "Evidence on the Volunteer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7 no. 4: 801-24.

R. B. Freeman (1997) "Working for Not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1 pt. 2: s140-s166.

Roy, K. and S. Ziemek (2000) *On the Economics of Volunteering* ZEF Discussion Paper 31.

Satoshi Nakano (2005) "Who Volunteers in Japan and How? Basic Findings From Micro Data" *Keio Economic Observatory Discussion Paper* No. 96.

Statistics Norway (2002) *Time Use Survey 2000 - More Time for Leisure Activities.*

Sturgis, P. and Jackson, J. (2003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UK 2000 Time Use Survey for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Examining Participation in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_____ (2003b) *Examining Participation in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Analysis of the UK 2000 Time Use Survey - Phase 2.*

Statistics New Zealand (1999) *Time Use - Time for Culture.*

Tom Healy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at International Level" *Social Capital: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Measurement* paper 2: 1-24 : National Statistics, UK.

UK (2002) *How People Use Their Leisure Time - Overview of the UK 2000 Time Use Survey.*

中島隆信, 中野 諭, 今田 俊輔 (2005)《わが.のボランティア.供給 一個票デ. タ に よる ボ ランティア供給の 推定一》

[2007. 7. 26 접수 | 2007. 10. 25 채택]

The Empirical Analysis on Supply of Volunteer Labor and Economic Valuation of Volunteering in Korea

Tae-Hong Kim · Nan-Jue Kim · Tae-Hee Kw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nce of the social capitals that explain voluntary services. The testing results indicate that the decision to join the voluntary servic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s, householder, marriage, preschool child, gender, physical condition, income, education, job position, occupation, region, day, etc. And a giving tim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s, marriages, working together of husband and wife, gender, income, job, occupation position, a type of living house, etc. Moreover, we fin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the voluntary services estimate at 21,467 billion won a year in 2004, and GDP ratio is 0.2% that is lower than those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Key Words: volunteer services, economic value, social capital